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 와 使命에 關하여

崔 昌 奎

이러한 命題는 우리 建築士 全體의 가장 重要한 問題이라고 生覺한다. 현 시점에서 누구에게나 正當한 信義를 받지 못하는 建築士 자신들의 未來를 위하여 냉정하게 批判을 加하므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기 廣範圍한 問題點들을 提示한다.

던져진 后의 波紋이 두렵고 현재를 安逸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十字架는 누가 지겠는가. 이 발판에서 문제의식을 회피하였던 會員들의 覺醒劑가 될 수 있다면 기쁘겠고 문제가 제시 되었다고하여 술렁되거나 解結點의 核心을 걸돈다면 우리 발전을 外面하는 처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環境과 제도과 自身 스스로의 크나큰 문제들의 발전의 지해 내지 나아가서 果實을 초래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 수 없다.

건축사협회가 40여명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천여명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파란을 겪었음을 인정한다. 解放前의 건축 대서사가 현재의 建築士와 量과 質의 差가 있듯이 지금의 우리도 현실에 임하는 자세에 격차가 있을 것이다.

- 여기에 1. 制度上의 問題點
- 2. 現實上의 問題點
- 3. 精神的인 問題點

으로 나누어 문제를 제시하겠다.

1. 制度上의 問題點

건축 創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直接의 問題를 내포한 것이 觀望과의 關係에서 비롯되

는 諸 문제이다. 건축이 工字이기 前에 業연한 藝術임에 틀림 없을진대 日의 우리 실정은 어떠한가.

예술인을 자칭하면서 우리는 허리를 굽혀야하고 觀望을 부지런히 다녀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術을 기우려야한다면 그 궁지는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

타당한 작품에 왜 사바사바가 來 되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들이 官庁과의 미묘한 關係에서 生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띤다. 건축사는 觀望에 허리를 굽힘으로 2次的으로 實情을 모르는 國民을 우롱하며 나아가선 국민이 他意에 依하여 違法을 行하지 않을 수 없게끔하고 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더구나 建築士法이란 건축사 자신을 保護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음이 確然한데 我們 法의 罅에 依함을 當하는 罅이 되지 않았는가.

법을 빙자하여 건축사 및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면 이런 법이야말로 再考하여야하며 새로운 方法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예로서 我們 建築許可 問題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건축만이 왜 까다로운 법조문에 拘束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모두가 질서하에 유지되기 위하여 어느 限界의 規制는 必要하다. 여기에 순수한 목적외에 다른 것이 포함되었다면 창작 本然의 性格은 침해를 當하는 것이 아닌가.

건축 設計圖書 자체를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적어도 허가 도서를 심사하는 사람은 설계자보다는 높거나 적어도 같은 程度의 能力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다. 우리 실정을 살핀다면 異意가 有

다. 과연 審査者들이 그 程度의 資質을 갖추고 있는가.

建築士 資格試驗을 보면 약간의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 2급이란 級數 自体가 그렇고, 實務, 經驗, 年限에 關한 條件도 그렇거니와 合格率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應試者의 低質도 문제가 되겠으나 오직 자격만을 인정하는 시험에 1회 87.2%, 2회 78.3%, 3회 14.1%, 4회 12.2%, 5회 34%, 6회 19.2%, 7회 29%, 8회인 금년에 23.7%의 합격율은 재고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많은 건축사는 경쟁의 대상이기 전에 자신들을 보호하는 크나 큰 파위를 형성하여 사회적 地位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잊어선 안되겠다.

曲解한다면 新人의 진출을 意識的으로 저지하는 결과가 된다. 기성세대는 젊은 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위치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가. 自信이 없는가.

건설부에서 認定한 건축사 설계보수 요율은 어떠한가. 外國 정도의 대우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지에 손상을 받지 않고 있는가? 최소한 창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한 뒷받침은 되어 있는가. 의무적인 監理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들은 과연 창작 활동의 理想에 위배되는 점이 없지는 않는가? 여기에서 會計法上의 문제를 輕視할 수 없다. 건축물의 설계 創作은 경쟁입찰에 의거 집행하게 되어있으니 경쟁입찰이란 수요자가 일정한 품질, 규격, 양식, 모양을 제시하였을 때 동일한 規格으로 納品할 경우에 해당하지만 建築設計用役이란 건축사의 個性과 思想이 농후한 창작물임에 이에 경쟁을 붙인다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은 經濟性만을 追求하고 建築物의 質은 2次的이란 觀念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視線을 건축사협회 자체로 돌려보자. 우선 千餘名의 회원에 극소수의 任員이라는 점은 보편 타당성을 잃은 불균형이며, 獨走의 염려는 없는가?

민주주의가 正當한 多數에 依하여 成立된다면 小數의 獨走라는 協會의 體制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또 정관이나 協會趣旨에 없는 事業이나 行事의 자금은 會員의 不平을 사며 얻어지는 않는가?

2. 現實上의 問題點

우리가 處한 位置가 現實이기때문에 많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 이전에 度

德이나 倫理가 앞 선다는 사실을 否認하지 못한다. 윤리란 社會生活의 최소 限界이기때문에 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의 可否조차 따질 필요가 없다.

같은 건축사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害를 끼친다거나 자기의 利益을 위하여 최소의 윤리조차 망각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創作物에 어떻게 덤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창작물에 어떻게 명의대여가 있으며 創作物에 어떻게 入札이 있겠는가?

현실이란 現實이기때문에 우리가 理想하는 바와 反對로 나간다는 逆說도 成立할 수 있다. 主業과 副業의 限界를 不分明하게 한다거나 어떤 건물의 낙성식에서 건축설계자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式場은 그럴수록 盛大했고 式順에는 施工者의 표창 순서가 있고, 갈채는 더욱 요란하고 이것을 보고 예술의 길은 멀고 험하다고 하여야만 하겠는가.

自信의 문제로 話順을 바꾸어 보자. 건축을 云云하는 우리들이 갖춘 事務室의 施設은 어떠한가. 과연 탐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궁지조차 돼지우리에 던지고 현실에 급급하며 생활을 하여야 하는가. 一年에 기백건의 業務를 처리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우리 그에게서 얼마만큼의 眞實한 作品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 많은 量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얼마만큼의 건축人口가 창작에 자부심과 궁지를 가지고 있는가?

세계가 넓듯이 情報는 數없이 우리 주변을 스쳐가고 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넓은 세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듯이 시야를 넓은 곳으로 돌려 側쪽을 加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아닌가.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事項이 建築主와의 關係에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面에서 본다면 건축엔 탐욕적이고, 무지 독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주에게 自存心까지 팽개치고 야합한다면 축적되어가는 損失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그들에게 眞實을 說得하

로 우리 全體의 利益을 얻는다면 다소의 손실은 감수해도 좋지 않겠는가. 바로 認識된 건축사의 一員이기 때문에 대의를 위한 努力이 結局 자신 利益으로 倍加되어 돌아오지 않겠는가.

3. 精神上的의 問題點

文公部는 한 발표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과 사상을 정립 발전시키고 그 바탕 위에 외래 문화예술의 정수를 섭취하여 이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킴으로써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민족문화를 창조』 하라고 했다.

앞서 이야기한 세계와의 접촉은 대국적인 입장에서 발전을 意味한다. 무조건 받아들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개성을 확립시켜 흡수해야 할 것이다.

건축학은 이미 工学이나 藝術의 境地를 넘어 哲學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닥아오고 있다. 우린 건축을 哲學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는가. 不滿의 현실에 充實하여 本來의 의를 잇는다면 우리는 自身에게 서슴지않고 채찍을 들어야 한다. 자신에 비판의 채찍을 원하지 않는다면 苦難의 길은 누가 引導하겠는가.

國際的인 건축의 흐름이라든가 사상의 變遷過程이라든가 나아가서 인간 자체의 문제점을 解決하

지 않고서 인간이 保護되고 人間이 使用하고 人間이 살고 發展하는 곳 卽 건축을 어떻게 이루겠는가.

건축사는 建築物만의 思考를 지양해야 한다고 한다. 건축의 目的이 人間을 爲함이기때문에 人間 환경이라든가 社會生態의 分析 내지 研究가 必須의이 아닌가. 또 未來로 向하는 未來學도 말이다.

몇장의 圖面이 건축의 全部가 아닐진데 人間 환경의 범주인 政治, 經濟를 포함한 文化를 이해함이 없이 그 속에서 나온 思想은 얼마큼의 깊이가 있겠는가. 또 그의 個性의 成立은 어떠한가 사회와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우리가 文化에 기여할 의무가 있듯이 국가에 공헌할 의무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헌을 창작에서 意識的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正當한 우리의 길로 정진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결국 순수한 精進은 좁은 의미의 愛國 愛族으로까지 도달하겠으며, 끝으로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現實에 하고 있는 일은 그와 반대의 길을 걸었던 과거와 현재를 심판대 위에서 냉정하게 注視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以上簡略하나마 廣範圍한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確保와 使命에 關한 問題點들을 提示한다.

— 끝 —

(筆者 新進建築研究所 代表)